

우유

교장선생님

◆ 이 글은 본회가 우유음용확대를 위하여 82년 도 하반기 중에, 학교 급식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수기 현상을 모집, 응모작품중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글이다.
..... 편집자 주..... ◆



해태유업(주)

판매 1 과 이 상 봉

어느덧 乳業會社에 입사해서 근무한지도 3년째로 접어든다. 입사해서 부터 줄곧 판매부에서 관측담당 및 지도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본래 우유의 「牛」자도 모른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문가 못지않게 우유의 생산과정 및 영양가치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섭렵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닌듯 싶다. 또한 서울시내의 우유판매 유통구조 및 판매량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다. 어리둥절한 채

로 근무했던 신입사원때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관측지도사원의 수 많은 우여곡절을 말로 형용하기가 어려우리만큼 많이 겪어왔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1970년대 후반기 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할 때부터 국내의 경제 동향도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근무 하고 있는 H乳業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싶었다. 그러니까 내가 입사한 것도 경제불황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였기 때문에 苦生이 이루말할 수 없었고, 會社에서의 나에게 거는 기대도 자못 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會社 자체조직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었다. 관리부서에서 판매부서로 인력자원이 대폭 이동되었고 새로운 人力을 뽑는 바람에 수 적으로나 質的으로 제일 막강한 조직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代理店을 통한 판매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그때부터는 직원을 통한 직판에 主力을 기울였었다. 그러나 他 乳加工業體들도 판매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유가공업회사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設立됐기 때문에 文字 그대로 春秋戰國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판매 물량이 하루아침에 대폭 증가할 수는 없는 노릇-. 이에 모든 사원들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야만 했다.

그 당시에는 출근만 하면 회사임원들 깨서는 다짜고짜 「왜 안팔려! 나가서 밋들 하고 들어오는거야...」 하며 부하직원들을 나무라곤 했다. 돌이켜 볼때 그 때의 근무상황은 어안이병병 했었고 끔찍할 정도였다.

나로서는 순식간에 판매량을 눈에 띄일 만큼 증가시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 이유로는 불규칙적인 기후현상과 또한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어 食品業界는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을 예로들어 윗 분들에게 보고 할라치면 他 社 製品을 잡아먹으면 될 게 아니야”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시곤 했다. 그러나 꼭 참고 출근시나 퇴근시에 판매증대방안을 계속 해

서 생각 했었고, 혹은 다른 内需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문의도 해봤고, 판매원들과 직접 판촉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시내 구석구석을 수 없이 시장조사를 실시 했다. 그러나 노력에 상응하는 기대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또한 會社 자체적으로 판매전략을 세워 시행했으나, 번번히 시행착오를 겪는 난항을 거듭했다.

그후 줄곧 노력의 성과가 있었던지 제법 매년 판매성장율을 올릴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 우유급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발육을 위해 우유 급식의 필요성을 내 자신이 이론으로 여겼던 터라,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 지정 급식학교를 전부 공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후 학교급식의 최선을 다한 까닭인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나의 심정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다.

며칠전 일요일에 특별한 계획도 없고 더구나 아침부터 비가 떨어지더니 하루종일 내렸다. 별 수 없이 午前부터 텔레비전 앞에서 소일하게 되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중 어린이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게 느껴져 고정시키고 시청했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나는 제법 어린이 프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역지로 찾아려지면 직업의식의 소산이 아닐까...

入社하기전 까지만 해도 어린이 프로그램은 아예 시청을 안했는데 요사이는 어린이의 발달하고 건강하게 웃고노는 모습을 보라치면 나도 모르게 동심의 세계에 빠져들곤 한다. 그런데 프로의 主人公들이 뜻하지않게 Y 國校 어린이들이었고, 화면속에 안경을 아래로 걸친 육중한 몸매의 女校長先生님이 나타나셨다. 몇 분 동안 보고있을려니까 문득 교장선생님이 눈 앞에 아른 거렸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 전 일이다. 눈이 채 녹지않은 을시년스러운 겨울 날씨였다. Y동에 위치하고 있는 Y 국민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교문앞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다. 어느듯 교장실문앞에 다다르러 나는 옷매를 여미며 긴장을 가라앉히고 문을 슬며시 노크했다. 안에서 「네」 하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한 발짝 들여 놓는 순간 교장선생님은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보시며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시면서 몸을 자리에서 일으키며 다가 오셨다. 「H牛乳에서 왔읍니다. 학교우유 급식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인사차 예방 했읍니다. 무례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장선생님은 一言之下에 「안해요. 다음 기회에도 오실 필요가 없읍니다.」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교장선생님과 의 첫대면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무척이나 나를 당황케 했다. 이런 일이 있던 3일 후에 재차 訪問하기 위해 學校정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校長先生님이 간사회의에 참석키 위해 외출할 참 이었다. 인사를 정중하게 올리고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이니 다시는 오시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왜 또 오셨어요? 저 지금 바쁘니 時間도 없고 후에도 절대 오시지 마세요. 전 급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하며 정문을 쫓기는 사람처럼 뛰어 나가 버렸다. 난 멍한 상태로 하늘만 잠깐 쳐다본 후 터덜터덜 되돌아 오고 말았다. 그 후 서너차례를 찾아 뵈었지만 헛 수고였다.

Y국민학교에 인접해 있는 S국민학교에서는 우리 회사의 우유로 1년간 급식을 실시해 왔는데 S 국교 교장선생님 역시 여성이셨고 시내 국민학교 연합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Y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설득시켜 주실것을 부탁했다. S 국교 교장선생님은 쾌히 응낙해 주셨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다. S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은 아울러 牛乳給食반대우유를 아래와 같이 얘기 해주셨다. 첫째는 상급관청의 감사가 심해 눈치를 봐야된다는 점 둘째, 급식하는 어린이와 급식하지 않는 어린이의 위화감 조성 셋째, 학교내 직원의 업무가

에 따른 인력낭비 배째로는 우유에 크레임이 발
생될 경우 이에 따른 처리문제 등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 반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세칭 장사꾼 또는 업
자란 직업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견인
차적인 역군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교장선생
님을 꼭 설득시켜야겠다고 재삼 마음속으로 다
짐을 했다. 개학을 한 2개월 후에 우유급식 자
료와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급식현황을 뽐
아 교장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나는 「百年大計
를 이어갈 새 싹들을 무럭무럭 건강하게 키워
주는 게 참다운 교육자상이 아닙니까? 오로지
귀찮다는 핑계 하나 만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위선자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저는 굳이
저의 회사 제품만을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니
고, 타회사 제품이라도 급식을 해 주셨으면 합
니다.」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어
느날 퇴근할 무렵 나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를 드는 순간 직감적으로 Y국교 교장선
생님 음성이라 느꼈다. 「저 XX인데요, 내일
저희 학교에 오전중으로 내왕해 주십시오. 진히
드릴 말이 있으니까요.」

뜻밖의 일이었다. 완강하게 거부하던 그 분
께서 선뜻 응할 것을 생각하니 어리둥절했다.
이튿날 출근하자마자 그 길로 Y국교로 향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교장선생님은 활짝 웃는 얼
굴로 맞이하면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조금 있으
러니까 차까지 대접을 해주셨다. 교장선생님은
서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제가 전에 취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오. 그 동
안 여러번에 걸쳐 학년 주임선생님들과 회의를
가졌는 바 그 분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급식을
실시하자는데 성화가 대단했고 저도 마음을 고
쳐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당신을 생
각해서 당신네 회사 제품을 선정하기로 합의했
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학교에 야구부를
신설했죠. 따라서 그에 따른 지원은 조금이라
도 신경을 써주시죠. 저 또한 가끔적이면 전체

학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위화감도 없애고 업자
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겠습
니다.」 그 후 학교와 계약이 맺어졌고 교장선
생님과 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교장선생님은 조
회때나 특별활동시간 등등 시간이 날때 마다 어
린이들에게 우유를 마시라고 육성 또는 방송으
로 당부하며 설득시켰다. 그 결과 전체 학생수
의 거의가 우유를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부모 3명이 교장실에 찾아와 항의소동을
벌였다. 그 이유인 즉 「왜 교장이 무슨 권한으
로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유를 마시라고 강
요하는지요. 아무래도 업자들한테서 뇌물을
먹은 거 아뇨?」하며 심한 모욕과 욕설을 해대
는 게 아닌가. 교장선생님은 말을 전부 들으신
후에 침착한 표정으로 「이젠 우리나라도 식생
활을 개선해야될 시기라고 봅니다. 국력은 곧
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日本 같은
나라도 우리국민보다도 體力이 뒤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들은 그들을
“쪽바리”라고까지 세칭 불렀잖아요? 지금부터
라도 늦지는 않았으니 매일 규칙적으로 마시면
건강에 좋을 것이고, 값도 시중보다 훨씬 싸니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전부 마시게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연유에서 제가 아이들에
게 강요한 것이니 너무 오해는 마십시오. 저의
무례함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그제서야 학
부형들도 수궁이 가는 모양이었다. 교장선생님
은 더욱 더 어린이들에게 우유 마시기를 설 득
했다. 생활이 어려워 도저히 못마시는 어린이
들에게는 교장선생님이 스스로 자기 돈을 내어
마시게끔 했다. 그 후 어린이들은 교장선생님
을 볼때마다 우유교장선생님이라 불렀다. 나
역시 만나 뵈올적마다 우유교장선생님이라 부
르곤 했다. 그럴수록 친근감은 더해졌고 마음
한 구석에는 모정까지 느끼곤 했다. 한편으론
방문할 때마다 날아갈듯한 뿌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언젠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
각난다. 「女子없어요? 내가 중매 서줄까?」